



[뉴스] 현대차 美 공장건설 박차 IRA 대응 총력 02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09.41 (-6.20)	코스닥	785.88 (-2.44)
금리 (미국 3개월)	3.678 (-0.100)	환율 (원/달러)	1362.60 (+7.70) (2일)

## 신동빈 ‘동남아 랜드마크’ 진두지휘

(롯데 회장)

롯데, 베트남에 1.2조 투자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최첨단 스마트 단지 개발 동남아 사업 확장 본격화



신동빈 롯데 회장

완 주베트남 한국대사 및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판반 마이호찌민시 인민위원장, 레 탄 하이 전임 정치국 위원, 응우웬 탄 풍 중앙 당위원과 호찌민시 정부 관계자 등 베트남 현지 주요 인사도 참석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착공식에서 “올해는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지 30주년을 맞는 해”라며 “(착공하는) 에코스마트시티는 롯데의 역량이 총 집결된 스마트 주거 시설과 유통 시설이 자리잡아 향후 베트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시작하는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서울 코엑스의 1.5배 규모인 연면적 68만㎡ 규모의 대형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하 5층~지상 60층 규모에 쇼핑몰과 오피스·호텔·아파트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9억 달러(약 1조 1600억원) 규모다. 롯데는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유통 노하우를 접목해 베트남 최초의 최고급 스마트 단지로 완공할 계획이다. <4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롯데가 동남아시아사업의 대대적 확장을 위한 첫 삽을 떴다. 1996년 베트남에서 식품군을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25년만이다.

롯데는 지난 2일 베트남 호찌민시의 신도시 개발 지구 투티엠에서 ‘투티엠 에코스마트시티’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

혔다.

착공식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김상현 유통군 총괄대표, 안세진 호텔군 총괄대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 롯데그룹 주요 관계자들과 박소



집체만 한 파도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가 북상 중인 4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인근 앞바다에 집체만 한 파도가 일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오는 6일 새벽 제주를 지나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됐다. /뉴스시스

## ‘빨간불’ 켜진 경제성장률, 민간소비가 관건

무역수지 94.7억 달러 적자 ‘수출효자’ 반도체 역성장에 순수출 기여도 -1.0%p 전환

2분기 GDP, 민간소비 주도 성장률 기여도 1.1%p 확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자칫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 2분기 민간소비가 성장세를 견인했지만 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적자는 66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원화가치가 더 떨어지면 적자폭이 확대될 수도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무역수지는 94억7000만달러 적자로 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5개월째 무역적자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처음이며, 규모는 무역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 만에 최대치다.

이처럼 무역수지가 위태로운 흐름을 이어간 것은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율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달러화 대비 원화값이 급락(환율 급등)한 영향도 있다.

### ◆민간소비로 버틴 2분기

지난달 수출은 566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6% 늘었다. 수출은 지난 2020년 11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월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6월 5.4% ▲7월 9.4%로 올 하반기 이후 한 자릿수로 떨어진 모습이다.

반면 수입 증가세가 가파르게 확대되며 무역수지 적자를 키운 것. 최근 수출로 벌어들인 돈보다 수입을 통해 외국에 지불한 돈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28.2% 확대된 661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원유·가스·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과 원부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민간소비다. 민간소비

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칫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실제 올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가 주도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7% 성장하며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는 2분기 들어 성장률 기여도가 전분기보다 1.1%포인트(p) 크게 확대됐다. 정부소비 기여도는 0.1%p 수준이다. 반면 순수출(수출-수입)의 기여도는 -1.0%p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면에 계속>

/백지연 기자 wldus0248@

社告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

### 수소·전기차는 달리고 싶다

- 규제혁파의 시간 -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컵 대신 종이 빨대와 머그잔을 사용하거나 배달 음식 주문 시 일회용 수저나 젓가락은 제외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자동차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와 함께 궁극의 친환경 자동차로 불리는 수소차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규제와 턱없이 부족한 충전 인프라, 정부 지원 부족 등으로 글로벌 시장 성장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럼에선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철환 이노싱크컨설팅 상무, 권낙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센터장, 박재범 포스코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알토란 같은 강연을 펼친다.

- 행사명 :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
  - 주제 : 수소·전기차는 달리고 싶다 - 규제혁파의 시간
  - 일시 : 2022년 9월21일(수) 14:00~17:00
  - 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온라인 접속 : 신청자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개별 공지
  - 문의 :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i14mini)을 드립니다.  
\*상기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尹 “태풍에 완벽 대응” 지시

태풍 대비 점검회의 주제

윤석열대통령이제11호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며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선제적 대응과 ‘선조치·후보고’ 등 최고 단계의 태풍 대응 태세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대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집중호우의 상흔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

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어 국민들 걱정이 더 클 것이다. 정부가 한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한덕수총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전 부처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장·관계기관장들이 화상으로 참석하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하는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6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여야, 추석 밥상 ‘민심’ 경쟁… 이재명·윤정부 의혹 공세  
▲ 조정식, 이재명 檢 출석 여부에 “5일 의총서 당 총의 모아 결정” /사진 뉴시스

▲ 野 “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증거’ 차고 넘쳐… 처벌 불가피”  
▲ 병무청, ‘힌남노’ 대비… 태풍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 연기



▲ 정부, 용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검토… “대통령실 이전 상황과 연계”  
▲ 이준석, 경찰 소환 통보에 “이재명씨와 다르게 출석 거부 의사 없다” /사진 뉴시스